

독자의견



River & Culture

조강

박태진 |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

남을 흐르는 강과
북을 흐르는 강이
하나의 강으로 만나
흘러흘러 저 멀리 북에서 내려온
임진강물을 영접하고
어느 틈에 조강되어 서해로 사라지네

봄을 데리고 온 강은
꽃이 피고 지면
다시 봄을 거두어들이고
그토록 찬란하던 기억과 여운만 남긴 채로 미련없이 떠나네

지금 나는 봄의 한 중간을 유영하며 강 위에 홀로 외로이서 있네. 🌊